

스티븐 매튜슨 박사, 구약 이야기 설교, 8강: 스토리텔링, 시작과 끝맺음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 전달, 시작과 끝맺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과 끝맺음은 설교의 서론을, 끝맺음은 설교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이야기든 청중을 지루하게 할 수도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은 이야기꾼의 기술을 숙달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 개요를 작성할 때가 왔습니다. 해든 로빈슨의 말처럼,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로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임무는 설교 개요가 아니라 설교 자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설교가 아닙니다. 살 없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뼈대만 남은 설교에 살을 붙일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설교가 아닌 매력적인 설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자세한 개요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설교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적어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거의 40년 동안 해왔는데, 저도 여러 단계를 거치곤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한 단어 한 단어 직접 써본 가장 최근 시기는 약 2년 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녹화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약 18 개월 동안 설교 원고를 직접 써보는 것이 제게 좋은 연습이 되었어요.

저는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암기하려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설교단에 원고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글쓰기는 사고의 한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어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할지 생각하는 과정이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서론과 결론만 원고로 작성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땐 시간을 내어 한 단락을 써서 제대로 전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가끔씩 이 습관을 통해 설교 원고 전체를 작성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구어체로 적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노트북을 들고 앉아서 당신의 설교를 듣고 받아 적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받아 적는 것입니다.

혹은 녹음된 내용을 누군가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녹취록으로 변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이나 신학교 교수가 과제를 채점할 때, 문장이 불완전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불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 불완전한 문장이 있어도 괜찮아요. 원고를 작성할 때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을 쓰면 말하는 방식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설교 원고를 절대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설교 전날 밤에 적어도 한번, 때로는 두 번 읽습니다. 가능하면 금요일 밤에 한 번, 토요일 밤에 한 번 읽으면 되지만, 보통 토요일 밤에 한 번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 내용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면화하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나 표현들이 기억에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직접 써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설교 개요를 원고에 적을 때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룬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핵심 전략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 또는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를 잘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문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파할 때 그러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간결함과 세밀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묘사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현대 작가처럼 등장인물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세부 묘사와 설명을 덧붙여 우아함을 추구하다 보면 간결함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훌륭한 이야기꾼들의 작품을 읽는 것입니다. 우선 고전 소설가의 작품을 읽어 보세요. 특히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는 간결한 문체로 글을 쓰는 데 매우 뛰어 났기 때문입니다 .

그는 강렬한 동사를 많이 사용했고, 부사나 형용사는 많이 쓰지 않았어요. 문장은 짧았지만, 다양성도 보여줬죠. 네,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 그런 글을 쓰는 다른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특히 구약 성경 이야기나 구약 문화, 또는 구약 인물에 대한 창의적인 묘사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생애에 관한 책, 『세속적인 영성(Earsy Spirituality)』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 방식, 묘사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윗이 엔게디 근처 동굴에서 사울 왕을 만났을 때의 광야 만남을 묘사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 몇 명이 사해 위 절벽에 난 동굴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주목하셨나요? "사해 위 절벽에 난 동굴"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생생하지 않나요? 그는 날씨는 덥지만 동굴 안은 시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동굴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들은 깜짝 놀라 그것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울 왕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추격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사울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보지 못했다. 사막의 강렬한 햇볕에 바로 노출되어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 그의 눈은 동굴 구석에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그 순간 그들을 찾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다. 그는 그들 에게 등을 돌린다 . 물론 이야기 속 모든 장면을 그렇게 묘사할 시간은 없지만, 때때로 그런 장면을 골라 청중이 상황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묘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진 피터슨은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묘사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 그는 상상력을 사용했지만, 그 상상력은 원문의 세부 사항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 다윗이 동굴에 있고,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울이 동굴 안이 어둡고, 그의 눈이 빛에 적응하지 못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뒤쪽에 있었다고 묘사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 장면을 묘사 하기만 하면 됩니다 . 그런 장면들은 많은 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면 되니까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종종 참고했던 또 다른 책은 제임스 미치너의 『더 소스』입니다. 이 책은 고고학 발굴에 대한 허구적인 이야기와 실제 상황을 오가며 전개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임스 미치너의 대작 『소스(The Source)』는 서부 갈릴리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에 대한 허구적인 이야기와 발굴된 유물에 얽힌 고대 이야기를 넘나들며 전개됩니다. 특히 처음 373페이지는 기원전 605년경까지의 유대 역사, 특히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가족들의 일상생활, 농업,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관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나안의 어린아이 희생 제사에 대한 묘사는 충격적이며, 저 역시 설교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올 때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부분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좀 더 유쾌한 책인데요. 고(故) 프레더릭 뷰크너 장로교 목사가 쓴 『기묘한 보물들: 성경 속 인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한 간략하고 재치 있는 묘사가 담겨 있는데, 성경 속 인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이 책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역사나 문화 연구를 많이 했거나 고고학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소 기발한 발상이라서 전부 다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에서 그는 삭개오를 키가 작고 사회성이 떨어지지만 은행

계좌는 두둑하고 직업은 부정직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물을 묘사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을 묘사하는 그의 방식을 보세요. 그는 나아만이 시리아 군대의 5성장군이었으며 나병 환자 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어린 유대인 노예 소녀를 고용했는데, 어느 날 그 소녀가 고향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는 두꺼비가 병을 고 치듯 쉽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만은 왕의 소개장과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나 엘리사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시리아에 있는 강 들이 요단강을 소떼가 다니는 길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마치 야자 올리브 비누 광고 모델 같았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개종하고 가방에서 5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려 했지만 , 엘리사는 자신은 여호와와 선지자이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고 하며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가끔 그런 이미지는 너무 직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드네요. 요즘엔 야자 올리브 비누가 뭘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앞서 언급한 책, 『담을 뛰어넘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상의 영성』에서 유진 피터슨은 다윗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영적 성장이지만, 그의 생각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어 하는 설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는 탁월한 문장가이므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삼마와 다윗의 기름 부음 이야기를 그가 묘사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삼마는 그저 아들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삼마는 캘빈 클라인 청바지와 악어가죽 카우보이 부츠를 즐겨 신는, 약간은 세련된 청년 이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이라는 외딴 마을에 살던 시절에는 길을 건너는 것조차 소똥이 부츠에 묻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저속한 놀이와 천박한 오락에 참여하는 것은 그에게 고문과 같았다. 그는 사무엘이 무슨 속셈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 풍부한 문화와 취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무엘은 고개를 한 번 저으며 그를 거절했다.

자, 다시 한번, 그 예시는 설교자들이 구어체, 특히 현대적인 이미지를 이야기 속에 녹여내는 구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해석이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만, 지나친 유머처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효과적인지 판단해야 하지만, 때로는 약간의 유머를 더하고 삼마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그에게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형제들 각자에게 사무엘이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적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읽은 것과 같은 장면들을 묘사하려면 상당한 역사적, 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며, 바로 이 부분에서 훌륭한 주석서가 도움이 됩니다.

성경 사전과 성경 백과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 지도책이나 고고학 관련 책도 정기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책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성경 본문에 부합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호수아 3장을 설교할 때 요단 계곡에 대해 약 30 분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지리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읽었고, 그 결과로 이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곳을 이렇게 묘사했다. 태양의 첫 햇살이 산 고원 너머로 비쳐 요르단 계곡을 밝힐 때쯤이면, 공기는 이미 습기로 끈적거렸다. 지구 지하 깊은 곳에 난 지질학적 균열, 두 개의 단층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계곡, 해발 약 300미터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봄과 같았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지만, 이맘때 골짜기를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골짜기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저 구불구불 흐르는 평범한 강이 아니라, 성난 노인의 강이었다.

요르단 강은 그다지 넓은 강은 아니지만, 봄철이 되면 눈 녹은 물이 요르단 계곡 협곡을 따라 거칠게 흐르며 맹렬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불어난 초콜릿색 물보라가 긴 강물은 굽이굽이 흐르며 절벽을 깎아내고, 사납게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이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자, 제 글을 스스로 비판해 보자면, 표현이 조금 과하거나 지나치게 묘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지하실의 지질학적

균열” 같은 표현은 좀 지나친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르단 강에 오면, 네, 요르단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들은 '이건 봄철의 상황이고, 작은 강이지만, 작은 강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몬태나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 때, 봄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강이라도 감히 건너지 못했습니다.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장면을 묘사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재치 있거나 귀엽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몰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 구성에 있어 통용되는 요소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이야기꾼들은 독자나 청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들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동굴 앞쪽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대신 "데이비드가 동굴 앞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는 "누구누구가 다른 등장인물을 때렸다"라고 말하는 대신 "때렸다" 또는 "찌르다"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온라인 유의어 사전을 활용하면 표현의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때때로 '바위'와 같은 명사에 '큰'과 같은 수식어를 붙여 강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바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지, 백합, 장미처럼 적절한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상 17장을 설교하면서 엘라 골짜기를 묘사하려고 했는데, 그 골짜기에 어떤 꽃들이, 어떤 야생화들이 피었는지 알아보고 그 내용을 설교에 덧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 하나를 찾는 데 10분 정도를 썼을 거예요. 모든 단어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원고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원고를 펼쳐보면 '불쾌한 냄새' 같은 묘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약취는 어때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음식" 대신 "옥수수빵", "무화과", "포도"는 어떨까요? 단,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먹었을 법한 음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극심한 공포"보다는 "경악"이나 "공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제안을 드리자면, 수식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한 동사와 명사가 남긴 빈틈을 형용사와 부사로 메우려고 애쓰곤 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바로 이 점에서 대가였습니다. 그는 형용사를 불신하는 법을 정말 잘 터득했죠. 또 다른 위대한 작가인 칼 샌드버그는 말년에 "나는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 형용사를 의심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나쁜', '좋은', '큰', '멋진' 같은 형용사들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 '토브' (tov), 즉 '좋은' 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묘사할 때는 단순히 수식어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 해야 합니다 .

정말 중요한 팁 입니다 . 덧붙여 세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동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동감이란 수동태를 말하는 건데, 수동태는 글의 활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수동태 동사는 동작을 받는 주체이며, 영어에서는 보통 is, was, were, has been과 같은 전치사가 앞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골리앗의 이마는 다윗의 물맷돌에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문장이 됩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혔다고 말할 수 있겠죠. 큰 차이잖아요? 다시 한번, 원고를 훑어보고 수동태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AI(수동태)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직접 생각해야 할 부분을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생각을 마치고 원고를 완성했다면, 그 원고를 인공지능에 입력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단,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동태 동사를 찾아달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고, '수동태 동사를 꼭 써야 했던 부분이 한두 군데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부분을 수정해서 활성화시키면, 해당 문장에 오류 표시가 될 만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리앗의 이마는 다윗의 물맷돌에 맞았다."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눈에 띄게 표시된다면, 잠시 살펴보시고는 '좋아, 저 부분을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 콜리앗의 이마를 맞혔다고 표현하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면 글의 흐름이 끊기고 이야기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키케로가 존 로슨에게 한 지시에는 아이러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대신, "키케로가 존 로슨에게 한 지시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또, 설교 원고를 특정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그런 부분을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걸 활성화 상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해지죠. 제가 방금 제 규칙을 깬지만,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설교 원고를 쓰거나 소통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이나 글을 쓸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항상 경계 해야 합니다 .

네 번째, 너무 재치 있게 굴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창의적인 단어와 묘사는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을 너무 많이 뿌린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잘 모르겠네요. 저는 메이플 시럽을 아주 좋아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는 갑니다 .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 우리는 묘사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 진부한 표현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특히 대화를 묘사할 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냥 "콜리앗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너무 맛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콜리앗이 고함쳤다"라고 하는 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지도 모르죠. 사실,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 과해질 겁니다. 사실, 골리앗의 외침이 가장 효과적으로 요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세요.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골리앗이 거대한 사람이었다거나, 심지어 헝크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문간에 서 있었을 때, 그는 문틀 전체를 가득 채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골리앗의 브래지어와 재킷 무게만 해도 57kg은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창끝은 포환던지기 공만큼이나 무거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당신은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게 바로 제가 앞서 제안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성경 장면을 묘사하는 아니든,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말하는 방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생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설교할 때, 단순히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 외에도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중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를 시각화하는 것 외에도 청중을 위해 시각화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설명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 문화적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대 가나안 종교에서는..."이라고 하거나, 더 나쁘게는 "고대 가나안 종교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즐기만 할 뿐입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임스 미셔너의 책 『근원(The Source)』을 읽었습니다. 한번은 열왕기서를 설교할 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행했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청중들이 그 끔찍함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올리브밭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을 신부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과 배우자가 두려워했던 끔찍한 소식을 전해 주시죠.”

별자리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군대로부터 북쪽에서 공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내일 태양을 태우는 의식을 치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변에서 얻은 붉은 염료로 아기의 손목을 물들인 다음, 울음을 그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죠. 다시 돌아가서 작업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 저는 너무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생생한 묘사를 하는 걸 경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동 희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희생 제물을 직접 묘사한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이교도 신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떤 것이 그들의 공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다면, 가나안 종교가 뿌리내린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자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오늘 살펴볼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은 청중을 지루하게 만드는 방법일 뿐입니다.

배경 정보를 가져와서 이야기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내세요. 그게 바로 기술 중 하나인데, 배경 정보를 많이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처럼 풀어가면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고, 당신이 성경 사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상에 서서 성경 사전에서 한 단락만 읽어준다면, 아무리 도움이 되더라도 청중들은 지루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전하려는 이야기에 몰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한 적용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어떤 모습인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살인 재판의 최종 변론을 참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젊은이가 오랜 친구를 총으로 쏘 죽인 혐의로 고의 살인 재판을 받았는데,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검사와 변호사 모두 최종 변론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점입니다.

각 변호사는 피고인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각 변호사가 재판 초반에 다뤘던 많은 기술적 데이터를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탄도 보고서나 혈흔 분석 결과 등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배심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한 범죄 이야기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설교자들도 같은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은 우리가 각자 처한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라크가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들. 제가 한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바라크처럼 주저하기 쉽다고요.

하나님은 바라크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안전이나 최소한 안락함이 위협받을까 봐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녀들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 하기 위해 훈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스마트폰에 그 앱을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냥 "이것을 가정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거나 "자녀 훈육에 적용해야 한다"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초,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청중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묘사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예화나 인용구, 또는 다른 사실 정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룬 설교는 예화, 인용구, 통계 자료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자료들을 다르게 활용합니다.

삽화를 사용할 때는,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흐름을 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할 때 이야기를 삽화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사기 17장과 18장을 설교하면서, “몇 년 전, 에이브러햄 링컨이 폭스 강 에 왔을 때…” 같은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설교의 에너지와 추진력을 앗아가는 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할 예시는 간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대해 설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지 않고 7일 동안 성 주위를 행진하기로 한 군사 전략을 읽거나 설명한 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전략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농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게 작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가서 4쿼터 동안 공을 잡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아시겠어요? 길고 장황한 설명이 아니었죠. 필 잭슨이 마이클 조던을 코치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도 길게 늘어놓지 않았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두어 문장 정도였고,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은 그게 전부예요. 인용구는 일반적으로 설교의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의 흐름을 끊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뭔가를 한다면, 여호수아 6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때,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 이제 알겠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시 말해 그 정보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어 청중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룬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 서론이나 결론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든 로빈슨은 좋은 설교 서론은 흥미를 유발하고, 설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중을 본문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룬 설교를 시작할 때도 바로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용구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짧은 일화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와 경쟁해야 하므로, 이야기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 왜 우리가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하는지, 그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죠.

우리는 이야기가 그 질문에 답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제가 핵심 아이디어를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다룰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고편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네, 알아요. 사람들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귀 기울여 듣겠죠. 하지만 저는 처음에 흥미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의 도입부를 다 듣고 나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봐야겠어요. 좋은 도입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참, 도입부를 ‘콜드 오픈’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속 장면 중 하나로 바로 뛰어들어 묘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새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또는 “이것이 우리 등장인물이 겪는 곤경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도 오늘 똑같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즉 마무리 부분도 간결 해야 합니다. 독자가 핵심을 파악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 즉 ‘아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인용구나 간단한 예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장황하게 적용하거나 다른 내용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를 착륙시키세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착륙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조종사가 “공항 주변을 선회하고 있어요. 항공 교통량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때 느끼는 답답함을 아실 겁니다. 설교의 결론도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결론을 원고 형태로 미리 작성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착륙을 시도 하는데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활주로를 돌고 또 착륙을 시도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네요.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론과 결론 모두 간결하게 하세요. 자,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세요.

원고를 완성하셨고,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아셨을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설교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인 설교 전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여덟 번째 시간, '이야기 전달, 시작과 끝맺음'입니다.